

• 타운뉴스칼럼

신선한 선량들의 등장을 기원한다

인창해
타운뉴스 발행인



이 글을 쓸까 말까 망설이며 꽤 오랜 시간을 보냈다. 가 능하면 정치 얘기를 삼가기로 한 내 글쓰기 원칙에 어긋 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다 보니 나도 무엇이 진실인지, 어떻 게 하는 것이 옳은 처사인지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따르 게 되어 내 나름대로 느끼고 있었던 내 마음을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해 이 글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필자가 만나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대한민국의 정 치 현실에 대해 논할 때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 다. 그쪽이 어느 쪽이든 간에 무조건적이다. 일정 부분 에서는 그들의 주장에 동의한다. 그러나 전부 다 동의 하지는 않는다.

몇 가지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 딱하니 당 대표가 되어 당을 제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 다는 것이 말도 안 된다. 심지어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 천하는데까지 깊이 관여하여 제 마음에 드는 사람들 만 골라서 후보로 내세우고 있지 않은가. 단 한 번이라 도 자신을 비판하거나 비평한 사람은 아예 후보가 되지 못하도록 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규칙을 만들어 가면서 말이다. 어찌 그렇게 제 마음대로 하는지 꼴불견이다.

심지어 이런 규칙으로 서울 어느 지역구의 후보로 확 정된 사람이 자격 미달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후보를 취소하고 당 대표를 비판한 사람을 포함해 다시 후보 경 선을 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당 대표의 입맛에 맞는 사람 이 후보로 선출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 새 후보도 역시 자격 문제 논란에 휩싸이자 소속 당에서는 후보 교체 불가를 천명했지만, 논란이 지속되자 결국 후보자 스스 로 후보직에서 사퇴하였고, 또 다시 당 대표의 측근이 새 후보로 지명되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

다른 한쪽도 마찬가지다. 검사하던 사람이 하루아침 에 대통령이 되는 나라다. 정치판에 오죽 사람이 없으면 그럴겠는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 뒤를 졸졸 따라 다 니던 사람을 당 대표 격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시키고 더 나아가 차기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려는 시도를 하고 있 다. 이를 눈치 채지 못한 사람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검사 출신이라 정치를 잘못할 거라고 주장하는 건 아 니다. 검사는 경찰, 군인 등과 흡사하게 일종의 조직문 화에 길들여진 직업군(職業群) 출신이라는 점을 간과해 서는 안 된다. 이들이 움직이는 세상은 상명하복(上命下 服)이 중심 철학이 되고 모든 것을 법과 질서를 앞세워

해결하려는 세상이 될 것이다. 아랫사람이라고 무조건 윗사람을 떠받들고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전근대적 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상명하복이 사회적인 틀 이 되어서도 안 된다. 또 세상이 법과 질서로만 움직여 지지도 않는다.

검사 출신 정치인들이 법률 이해도가 높고, 사안 분석 력이 뛰어난 점은 의정활동에서 큰 장점이지만 국회의 원이 되겠다고 이번 총선에 출마한 검사출신 정치인들 은 정치를 하려는 목적을 국민에 두지 않고 국회의원 당 선 그 자체에 두고 있다. 심지어 검찰에서 일하다가 총선 에 나선 몇몇 후보들은 정치 영역에서 복수 내지 명예 회복을 하겠다는 뜻으로 출마한 것은 아닌가 하는 우 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번 22대 총선에 전례 없이 검사 출신 예비후보자가 난립하는 것은 검찰이 정치화 되면서 정치가 검사들이 퇴임 후에 거쳐 가는 하나의 옵션이 돼버렸기 때문이 라고 생각한다. 검사가 되고 검사장이 되고 나름 올라 갈 때까지 올라갔으니 이제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것이 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하겠다' 는 고 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이 되고 보자는 것이다.

운동권을 청산하자면서 운동권 출신과 맞서 싸울 사 람으로 운동권 출신을 내세운다. 기가 막힌 발상이라고 박수를 치는 사람도 적지 않은 듯한데, 이 또한 잘못된 것이다. 논리가 바로 서지 않는다. 흑자는 말한다. 운동 권 출신이지만 전향한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러 나 아무리 전향을 했더라도 어찌든 운동권 출신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 않은가?

이 세상을 위선, 사기나 협잡과 음모, 모략 등으로 움직 일 수는 없다. 그렇다고 진실 혹은 이성과 논리 그리고, 법치나 정의로만 다스릴 수도 없다.

현실을 떠난 최고선(最高善)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실 을 외면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최고선은 많은 사람들로 부터 인정받는다 해도 실질적 가치를 지니지 못하는 것 이다. 정치는 현실을 토대로 해서 이상을 향해 나아가갈 때 바람직한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유권자들 한 분, 한 분이 선거일까지 신중히 검토하고 선별해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바른 사람을 선택하기 바 람다. 신선한 선량(選良)들의 등장을 기원한다.

chahn@townnewsusa.com

타운뉴스



제1517호 목차

- 타운뉴스 칼럼 13
- 커뮤니티 소식 15,17
- 세상에 이런 일이 19
- 나는야 1.5세 아줌마 20
- 법률 21
- 우리 동네 걷기 좋은 곳 23
- 전문인 칼럼 28,29,40
- 숨은그림 찾기/답, 낱말 퀴즈/답 30/56,30/54
- 건강 37,40,41
- 깔깔 38
- 부동산/경제 39
- 자동차 43
- 한인업소 안내지도 44,46,62,64,66
- 요리 45
- 사진여행 47
- 연예 51,53
- 종교 52
- 안내광고 54,55
- Domestic 56
- 여성 61,63

역학의 관점에서 본 자녀의 적성과 전공은 무엇이 최선일까요?

건강운, 재물운, 결혼운, 재능운, 풍수, 작명

714.623.7005

전화 상담/예약필수 @scarletsun27 Lindam22

기주장익시

매장·화장·묘지주선·이장·장례보험등

- 넓은 주차장 • 교통 편리 (LA, OC-20분)
- 저렴한 비용으로 봉사하여 드립니다.

24시간 대표: 정영목 목사
9830 Lakewood Blvd., Downey, CA 90240
TEL (562)622-9393

Keon-Jung Kim Dental Corp.

IMPLANT, COSMETIC, ORTHODONTIC & LASER DENTISTRY ORAL SURGERY

www.timkimdental.com

터스틴

김건중 종합치과

39년 임상경험의 치아이식 전문의 및 4명의 각 치과 전문의와 함께 모든 치과진료를 한곳에서 받을수 있는 종합치과

Our clinic is DISINFECTED and SAFE to VISIT

일반·미용치과 전문

Maria Capiral, DDS
William Wang, DDS
Diemphi Nguyen, DDS

교정치과 전문

Jin Kim, DDS, MS
Columbia 명문대 졸업
미국 board certified orthodontist
(미국 교정치과 보드 전문의)

임플란트/구강외과 전문

Timothy Kim, DDS, MS, Ph.D



뼈가 부족한 분에서도 자가혈에서 채취한 PRP와 CGF를 이용한 뼈이식과 임플란트 수술 가능

- 3차원 CT 촬영으로 정확한 진단과 수술
- Surgical Microscope을 이용한 섬세한 외과수술 및 동영상 촬영
- 레이저를 통한 무마취·무출혈·무통 잇몸치료

Address 2492 Walnut Ave. #200, Tustin, CA 92780
tel. 714-760-4988 949-679-6000
(San Diego) 760-757-9876 760-479-9876



NEW LOCATION TO BETTER SERVE YOUR DENTAL NEED

KEON-JUNG 'TIMOTHY' KIM
구강외과/치아이식 수술전문 ORAL SURGERY
D.D.S., M.S.D., Ph.D.

- 대한 구강악안면 외과 board certified specialist
- 인천 중앙 길병원 치과 구강외과 주임과장 역임
- 대한 구강악안면 상형재건외과학회 지도의 역임
- LSU 치대 구강악안면외과 Postgraduate Fellow 역임
- LSU 치대 구강악안면외과 조교수 역임
- New Orleans Charity Hospital 구강외과, 치아이식과 임상과장
- 미 치아이식학회 (AAID, AO)회원
- ADA, CDA, OCS, KADA 회원